

영어 소절주어와 수의 불일치¹⁾

홍 성 심
(충남대학교)

Hong, Sungshim. 2000. English Small Clause As Subject and Number Mismatch. *Journal of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8(3), 219-240. This paper discusses an interesting array of English examples that display Subject-Verb mismatch. Subject-Verb Agreement is undoubtedly the single most prominent agreement in the syntax of English. Yet, there are some interesting instances where this agreement is not observed. For example, Quirk, et.al (1972), Safir (1983), and Baltin (1998) have discussed this particular phenomena. Safir's analysis is more or less syntactic in that subject-verb mismatch i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small clause used as subject of the finite sentence is in fact a clause rather than DP/NP. Baltin's analysis, on the other hand, is semantic since he observes some examples in which the most typical plural DP/NP takes a singular verb. I examine this type number mismatch found in the small clauses which are used as a superficial subject of a finite sentence, drawing a conclusion that the subject-verb number agreement may remain purely syntactic. From that conclusion, my analysis renders support neither to Baltin (1998) nor to Safir (1983). (Chunnam National University)

1. 서론

이 논문은 시제문의 주어로 쓰인 영어 소절²⁾(Small Clause, SC)에 관한

1. 이 논문에서, 주어를 문법적 개념(grammatical primitive)으로 파악한다거나, 구조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2. 여기서 소절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동사가 출현한 구문, 즉 예외적 격할당(ECM) 구문을 제외한다.

(i) I considered *John to be intelligent*.

연구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어의 몇몇 소절 예문들에서 영어의 가장 확실한 일치현상인, 주어-동사의 수의 일치(Number Agreement)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1a)와 (1b)같은 경우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³⁾

- (1) a. *Workers angry about pay is* the last thing we need now (Safir, 1983)
 b. *Wall-to-wall carpets in every room is* the housewife's dream (Quirk, et.al. 1972)

우선, 위의 예문들이 보여주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주어인 명사구가 확실히 형태적으로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주어-동사 수의 일치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관해, Safir(1983)는 (1a)의 경우가 특히 주어인 'Workers...'가 명사구가 아니고, 절이어서 수의 일치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절 범주는(clausal category) 다음과 같은 몇몇 통사적 특징이 있다.

첫째, 절 주어의 통사적 특징 중 하나는 일반 명사구와 달리, 의문문이 될 때, 주어 도치(Subject-Auxiliary Inversion, SAI)가 허락되지 않는다. 다음을 고려해 보자.

- (2) a. *That John came* surprised me.
 b.**Would that John came* surprise you?
 c.**How much would that John came* surprise you?

(2a)는 절 주어가 있는 문장인데, SAI가 된 (2b)와 (2c)는 비문법적이다. 즉, 절 주어는 명사구와 달리 SAI가 허락되지 않는다고 일반화 해볼 수 있다.

둘째, 절 주어는 다른 절에 내포되거나 내포된 Wh-절의 주어가 되지 못

- (ii) *We wanted him to leave the country.*

따라서, 어떤 형태든 (be) 동사가 들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사가 없는 경우만을 논의한다.

3. Dowty와 Jacobson(1988)은 주어-동사의 불일치를 agreement mismatch이라고 논하고 모든 gap과 그 filler들이 격, 성, 수에 있어서 일치하지만 *He/*Him was easy to please*_____ 같은 tough-이동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예를 논의하고 있다. 즉, gap의 위치는 동사 *please*로부터 대격을 받아야 하는 위치이지만, 사실 문장의 표면에 나타난 filler는 주격 *He* 이지 대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다. (3b)-(3d)가 비문법적인 것은 바로 그런 일반적 특성에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 (3) a. [*That John deserted his wife*] surprised me a lot.
- b. *I think that [*that John deserted his wife*] surprised me a lot.
- c. *I wonder whether [*that John deserted his wife*] will surprise them.
- d. *I wonder if [*that John deserted his wife*] will be a complete shock.

셋째, 명사구와 달리, 일반 절은 소절의 주어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음의 Haegeman(1999)의 예문을 살펴보자.

- (4) a. *I consider [*that he will abandon the job*] unimportant.⁴⁾
- b. I consider *it* unimportant *that he will abandon the job*.

이상과 같이 절 범주의 통사적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이런 통사적 특징을 가진 일반 절과 달리 시제나 동사가 결여된 소절들과 관련한 통사적인 문제점을 논의해보자.

2. 소절 주어의 통사적 문제점

2.1 소절 주어와 격의 문제

소절은 Stowell(1981), Chomksy(1981), Williams(1983), Chomsky(1986), Radford(1988), Stowell(1991), Aarts(1992), Aarts(1997)등 많은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Stowell(1981) 이후 소절은 tenseless/verbless

4. Culicover(1997, p 129)는 이와는 상반된 문법적 판단을 하고 있다.

(i) I considered that you were here obvious.

(ii) I considered THAT YOU WERE HERE obvious.

이 문장과 관련하여 Culicover는, 개인적 접촉을 통해, 소절이 다른 소절 속의 지정어 위치에 올 수 있는 경우는 (ii)와 같이 적절한 intonation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의 입장을 밝혀왔다. 우리는 Haegeman(1998)과 동일한 입장을 택하고, 적절한 intonation의 정의를 Focus라고 제안해 본다. 이는 향후 연구의 주제로 남겨둔다.

clauses 라고 인정되어 있다.

(5)에 있는 대표적인 소절의 예를 살펴보면, 소절이 문장의 구성 성분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X-bar 구조적으로는 [NP, SC]인데 이때 SC는 최대주사 범주로서, SC를 하위범주로 택하는 상위 절의 동사 또는 술어에 의해서 선택되는데, 그 범위는 NP, AP, PP, VP 등이 가능하다.

- (5) a. I consider *him a culprit*.
 b. John believed *Mary intelligent*.
 c. John expected *the ship off the pier*.
 d. John wanted *his wife killed*.
- (6) a. I made *him leave the room*.
 b. I got *him invited to the party*.
 c. I heard *him leaving the building*.
 d. I had *them work harder*.

그런데 이런 소절들이 어떤 경우에 시제문의 주어로도 사용될 수 있다. 문장의 주어로 사용된 소절의 경우 두 가지 면에서 매우 흥미롭다. 그 하나는 주어로 쓰인 소절내의 명사구가 과연 어떤 격을 어떻게 할당받는지에 관한 문제이고, 나머지 하나는 주어로 쓰인 소절에서 주어-동사 수의 일치 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첫 번째 언급된 문제를 먼저 논의해 보겠다. 즉, 소절이 예외적으로 격을 할당하는 상위 동사와 만나면, 이들 상위동사로부터 대격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설명이다. 위의 (6)이 형태적으로 보여주듯이, *him*이나 *them*은 소절의 지정어 위치에 있지만 상위 절 동사로부터 대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Culicover(1997)는 문장의 주어로 쓰인 소절이 전통적 의미의 예외적 격 할당 이론에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7) a. [*Susan/?Her/*She angry*] is a terrible sight.
 b. [*Susan/?Her/*She in the Vatican*] made history.
 c. [*Susan/Her/*She solving the problem*] would be a stroke of lu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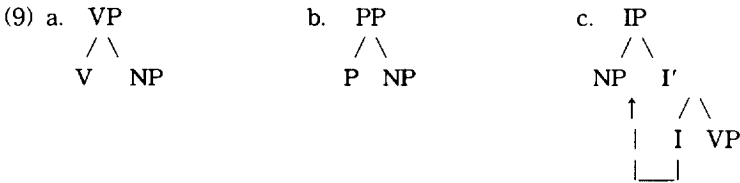
위의 예문들이 보여주듯이 일반명사 Susan 대신에 대명사를 사용하면, 그 문법성이 약간 떨어지지만, 그 수용성에 있어서 주격보다는 대격이 낫다. 따

라서 Culicover는 이런 소절들을 다음의 *to*-부정사구문과 비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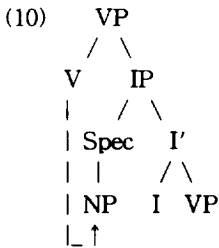
(8) [**(For) her to leave now*] would be a stroke of luck.

그렇다면 왜 *to* 부정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보문소 *For*가 없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는 소절에는 격을 할당할 수 있는 지배자가 (governor)가 내재하고 있는 반면, (8) 같은 *to*-부정사 구문에는 그런 지배자가 없어서 반드시 구조적인 격을 할당할 수 있는 보문소 *for*가 있다고 언급하고, *to*-부정사 구문과 소절은 구조적으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는 달리, Aarts(1992)는 지배(government)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어, 소절 속의 명사구는 간접지배(indirect government)에 의해서 격을 할당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간접지배는 목적격을 할당한다고 주장한다. 직접지배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최대투사범주가 없고, 다음의 형상이 직접지배의 형상이라고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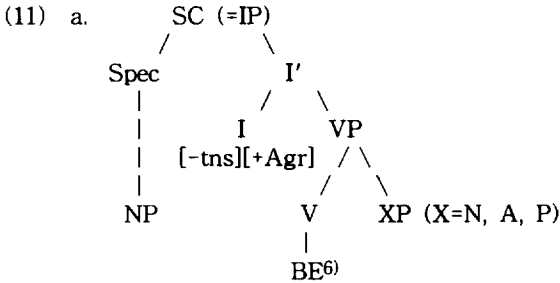


그러나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최대투사범주가 존재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간접지배의 형상으로 제안하고, 예외적 격 할당의 경우도 이에 속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따라서 주어로 쓰인 소절 속의 명사구는 간접지배 형상 내에서 자연스럽게 목적격만을 할당받는다 주장이다. 이런 Aarts의 분석은 소절 속의 명사구가 소절 자체 내에 격을 할당할 지배자가 있다는 Culicover(1997)와는 다르다. 그러나 두 분석 모두 소절내의 명사구가 목적격을 가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포착한다.⁵⁾

Aarts가 한 주장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소절의 위상이 IP이며, [-tense] [+Agr]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그가 주장한 소절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5. Aarts(1992)는 Radford와의 개인적 접촉을 통해 Radford의 다음 예문을 주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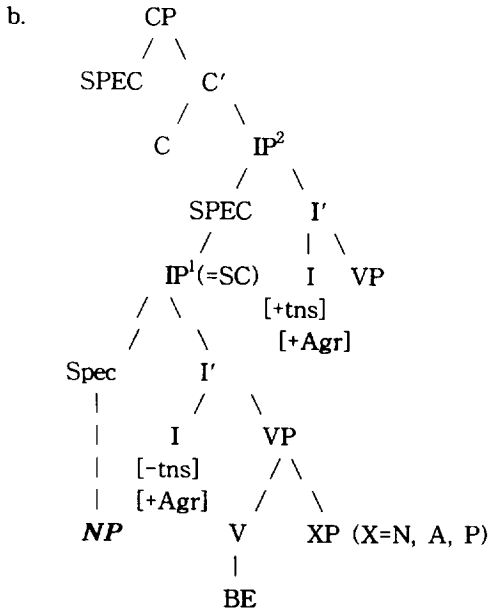
(i) [He in the front seat] and [she in the back seat] would be safer.

이 예문이 그의 간접지배는 항상 대격만을 할당한다는 입장에 반증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Aarts는 다음의 예문들을 들면서, (i)에서 소절속의 명사구가 대격이 아니고 주격인 점은 그의 입장에 반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주격이 출현한 이유는 (i)이 동등 접속구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등접속구문내에서는 격 할당이 이미 예측하기 어려운 random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예로 Aarts는 다음의 예를 들고 있다.

- (ii) [Tom and I] left
- (iii) [Tom and me] left
- (iv) [I and he] left
- (v) [He and I] left
- (vi) [Me and her] left
- (vii) [Her and me] left

이렇게 출현한 격이 이미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i)의 예문도, 소절주어의 명사구가 간접지배에 의해 대격을 할당받는다 주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6. 여기서 BE는 공백(null)의 *be*동사이다. Aarts의 분석에 의하면, *to be*가 있는 소절이나 *to be*가 없는 소절이 같은 구조적 형상을 하고 있어서 *to*는 I 밑에 있고, *be*는 그런 경우 V 에 속한다는 주장이다. *to be*가 있는 소절과 *to be*가 없는 소절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Aarts(1992), Rappaport(1992)등 참조.



(11a)는 일반적인 소절의 구조고, (11b)는 주어로 쓰인 소절의 구조를 수형도로 나타낸 것이다. 소절주어인 (11b)에서 소절주어 속의 NP는 자체적으로는 지배자가 없으나, 상위 절 IP²의 I [+tns/+Agr]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지배받으므로 소절 주어의 격은 항상 대격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Aarts는 다음의 예문들이 일관되게 설명된다고 지적한다.

- (12) a. *_[IP PRO bashful] would be a shame
- b. _[IP Mary sad] would be hard to deal with
- c. _[CP PRO to be bashful] would be a shame
- d. *_[CP Mary to be bashful] would be a shame

즉, *to be* 가 있는 구조가 CP고 소절은 IP라면, (12)의 예문들은 쉽게 설명된다. (12a)는 소절 주어 속의 PRO가 상위 절의 I로부터 간접지배 받았기 때문에 비문이고 (12d)가 비문인 이유는 CP때문에, 소절 주어 속의 *Mary*가 상위 절의 I로부터 간접지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그가 소절은 IP이며 InfI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의 예문들이다.

- (13) a. I consider [*this teacher megalomaniac*]
 b. I consider [*these teachers megalomaniac*]

이상과 같이, 소절 주어 속의 명사구는 격 여과 장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여기서는 일단, Aarts(1995)의 입장을 논의 없이 받아들이고, 소절 내의 명사구의 격 할당 문제는 차후의 연구로 더 미루어 두겠다.

2.2 주어로 쓰인 소절의 양면성: IP 와 DP/NP

우리가 서론에서 언급한 일반 절에 관한 일반화가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소절주어가 절에 가까울 것인가 아니면 명사구에 가까울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해 보는 일은 유익할 것이다. 우선, 소절주어가 SAI의 적용을 받는지 아닌지를 다음에서 살펴보자.

- (14) ?Isn't [*Workers angry about the pay*] just the sort of situation that ad campaign was destined to avoid.
 (15) Isn't *wall-to-wall carpets in every room* the housewife's dream?

소절주어는 다른 일반 절과 달리 SAI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aifr(1983)의 직관에 의하면, (14)가 완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일반 절이 SAI 되는 경우는 분명히 그 문법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즉, 위의 (2b)와 (2c)는 비문법에 비해서 (14)와 (15)는 확실히 낫기 때문이다. 즉, 소절 주어는 일반절과는 다른 문법성을 보인다.

두 번째로, 소절주어가 Wh-내포 절에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면, 일반 절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6) a. I think that *workers angry about the pay* is the situation that we want to avoid.
 b. I wonder whether *workers angry about the pay* is the situation that we have to avoid.

(3b, d)가 비문법적인 데 비해서, (16a)-(16b)는 수용성이 있음을 보아, 소절 주어는 일반 절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마치

막으로, 세 번째의 일반화인 소절이 다른 소절의 주어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 (17) a. ?I considered [*workers angry about the pay*] out of my control
 b. ?I considered [*John out of job*] incomprehensible

(17a)-(17b)의 문법적 판단이 확연하지는 않으나, 일반 절이 소절의 주어로 사용된 것은 Haegeman의 직관에 의하면 비문법적이므로, 소절 주어는 이 또한 일반 절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소절 주어가 일반 절과 그 통사적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소절주어는 명사구와 가까운 통사적 특성을 보여준다.

3. 주어-동사 수의 불일치: 소절 주어의 경우

소절 주어의 문제로 우리의 관심을 끄는 흥미로운 문제는 주어-동사 수의 불일치이다. 이런 경우를 보고한 대표적 연구로는 Safir(1983)와 Baltin(1998)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이들 두 사람의 상반되는 견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우선 주어로 쓰인 소절은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주어-동사 수의 불일치를 보인다.

- (18) a. [*BBC journalists angry about pay*] is the last thing we need (Haegeman, 1999)
 b. [*Workers angry about the pay*] is just the sort of situation that ad campaign was destined to avoid (Safir, 1983)
 c. [*Students drunk on weekdays*] is an unfortunate situation (Aarts 1995)
 (19) a. [*Workers drunk on workdays*] **drives** Melvin crazy (Aarts, 1992)⁷⁾
 b. [*Workers angry about the pay*] **displeases** the government

7. 사실 이런 예문들은 이 논문 안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장의 주어로 쓰였으나 주어-동사 수의 일치를 보이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이 *be*동사가 주어인 경우들이다. 그러나 여기서 *derive* 나 *displease* 같은 동사가 쓰였다는 것은 이런 수의 불일치를 일으키는 소절 주어가 사실 그 해석상 명사구가 아니고 *event*나 상황을 의미한다는 점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점은 이미 Safir가 지적한 바 있으나, 더 연구해야 할 예문으로 남겨놓겠다.

(Aarts, 1992)

(20) [*Wall-to-wall carpets in every room*] is the housewife's dream
(Quirk, et.al. 1972)

(18)-(20)의 예문들은 문장의 주어처럼 보이는 명사구가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동사들은 모두 단수를 취하고 있다. 피상적으로 살펴보면, 주어-동사 수의 일치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Sair는 이런 예문들이 복수 대신에 단수동사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BBC journalists*나 *Workers, Students* 등이 문장의 주어가 아니고, 소절이 주어이기 때문에 이런 소절은 일반적인 명사구 주어가 가지는 수의 일치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즉, 모든 절이 주어가 되면, 단수동사가 사용된다. 따라서, 소절이 절 범주라는 점에 착안하여, 수의 불일치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Baltin(1998)은, 그러나, Safir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반박을 하는데, 그 근거로 다음의 예문을 들고 있다.

(21) a. *Several angry workers* is just the sort of situation that the ad campaign was designed to avoid.

b. *Workers who are angry about the pay* is just the sort of the situation that the ad campaign was designed to avoid.

(21a)-(21b)의 주어 *several angry workers*나 *workers who are angry about the pay*를 (18a)의 주어인 *BBC journalists about pay*와 비교해 보자. (21a)의 주어는 그저 단순한 명사구일 뿐이다. (21a)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형용사가 있는 명사구이며, (21b)는 선행명사가 *workers*로서, 이를 수식하는 관계 절이 있는 전형적인 명사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a)-(21b)에서도 (18)-(20)의 경우와 동일한 주어-동사의 불일치가 발견된다.

따라서 소절이 절이어서 주어-동사의 불일치를 보인다는 Safair의 결론이 옳지 않다고 Baltin은 주장한다. 보통의 복수명사구가 주어가 될 때도 주어-동사 수의 불일치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Baltin은, 따라서, 수의 일치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의미적이어야 한다는 Dowty & Jacobson(1988)의 결론을 옹호하고 있다.⁸⁾

다시 말하면, 영어의 주어-동사의 일치현상을 순전히 형식적인 자질 점

검(formal feature checking)으로만 파악한 Chomsky(1993)의 최소주의 이론은 이런 주어-동사 불일치 구문에 의해 경험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Baltin(1998)은 주장한다.⁹⁾

4. 새로운 증거: 소절주어 구문의 불일치 재분석

4.1. Postverbal NP 분석

이상과 같은 주어-동사 불일치 구문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한다. Safir의 분석은 소절주어의 수의 불일치는 순전히 통사적인 문제로서, 소절이 명사구가 아닌 절이어서 생겨난 문제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Baltin은 소절 주어 구문의 수의 불일치는 주어-동사 수의 일치 현상이 순전한 통사적 현상이 아니고, 일부 의미적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즉, 일반 명사구 복수 주어도 - (21a)와 (21b)같은 예문의 경우 - 이런 불일치 현상을 야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의 일치가 순전히 통사적 현상으로 남으려면, Baltin의 예문을 설명해야만 한다. 그러나, 수의 일치현상을 의미와 연관짓는 일은

8. Dowty & Jacobson(1988)이 인칭, 격, 수의 일치가 부분적으로 의미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tough*-이동구문의 *filler*와 *gap*의 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가지고 설명한다. 즉, *He is tough to please*_____ 같은 예문에서 *gap*은 대격을 받는 위치이나 *filler*인 *he*는 주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9. 우리는, 수의 일치가 형식적인 문법자질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에 관한 예문으로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i) The council was unanimous in sending the troops overseas
- (ii) *The man was unanimous in protesting against the salary freeze
- (iii) The men were unanimous in protesting against the salary freeze
- (iv) The young couple meets on the street
- (v) *The man meets on the street

unanimous 같은 형용사는 통사적으로는 단수주어를 가지지만, 의미상 복수 주어를 요구하는 동사이다. 그러므로 정문인 (i)은 의미상 복수인 *the council*이 주어이고, 단수단수명사인 *the man*이 주어인 (ii)는 비문이다. 또한 (iv)의 경우도, 동사 *meet*는 반드시 복수 주어를 요구한다. 따라서 사용된 동사는 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이 역시 의미상 복수주어여야 한다는 것을 (v)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예문들은 사실 통사적 수와 의미적 수와의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들이다.

그다지 많은 옹호를 받아오지 못한 것이 또한 사시이다. 왜냐하면, 수의 일치 문제는 오랜 기간을 두고 통사적 현상이라고 전제되어 왔으며, 사실상 압도적으로 많은 대부분의 현상이 통사적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런 주어-동사 수의 불일치 구문에서, 문장의 표면상 주어의 위치에 있는 소절은 IP의 지정어의 위치가 아니고, FocP의 지정어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 소절 주어는 이 문장의 주어가 아니고, Focus를 받는 일종의 화제(Topic or Focused element) 범주라는 것이다.¹⁰⁾ 그런데, 이런 경우의 주어는 동사 뒤에 있는 Postverbal NP가 주어가 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소절주어 예문 중 하나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2) a. [*Students drunk on weekdays*] is an unfortunate situation
 b. [_{FocP} *Students drunk on weekdays*]_k [_F is_i [_{IP} an unfortunate situation t_i t_k]

만일 동사 뒤의 명사구가 이런 종류의 문장의 주어라면, 주어-동사 수의 불일치를 일으킨 것이 더 이상 의미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런 소절은 주어가 아니고, 동사 뒤의 명사구가 주어이기 때문이다. 이런 소절이 문장의 앞 위치에서, 마치 주어처럼 동사의 앞에 있는 것은 이들이 Foc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면서, 주어의 뒤에 있던 동사가 치는 소절이 Foc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기 전에 이미 순전히 통사적으로 Postverbal NP와 수의 일치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Safir의 입장을 반박할 경험적 증거를 몇 가지 더 제시하려고 한다.¹¹⁾

첫째, 동일한 소절 주어가 사용된 다음의 문장을 살펴보면, 수동구문에서 단수동사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3) a. [*Workers angry about the pay*] *was/were arrested.
 b. [*Workers angry about the pay*] *was/were taken to the

10. 여기서의 FocP라는 투사범주는, Negative Operator가 있어, SAI가 발생할 때 도 가지게 되는 범주일 것이다.

11. 물론, Safir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이미 언급하고 있지만, 이런 소절 주어들의 의미는 상당히 event-적이다. 즉, 이들의 해석이 일반적 명사구와는 다르고, 상황이나 사건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comptroller's office.

다시 말해서, (23)의 소절 주어 '*Workers ...*'가 개개인의 노동자로 이해될 때는 수의 일치는 복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3a)나 (23b)가 절이기 때문에 단수동사가 사용된다는 Safir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즉, 동일한 소절주어이지만, 이 경우 단수 동사는 옳지 않고 복수 동사가 사용된다는 것은 이들 주어가 절이어서 단수라는 것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다. 주어로 쓰인 소절이 절이어서 단수동사를 허락했다면, (23a)에서도 단수동사가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소절 주어의 경우 주어-동사의 수의 일치가 순전히 통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분히 의미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소절 주어가 동작의 행동주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진행형 속에 있는 경우를 설정해 보자. 진행형은 주어의 의지/행동이 진행 중일 수 있는지 여부를 실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형 속에 이런 소절 주어가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도, 복수동사만이 허락된다는 것을 (24a)-(24b)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 (24) a. *Workers angry about the pay *was/were* marching in the demonstration.
- b. *Workers angry about the pay *was/were* on a hunger strike.

따라서, (24)의 경우 "*Workers ...*"가 실제 주어이며, 이 경우 단수 동사는 옳지 않다.

셋째, 이 소절주어가 동작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를 살펴보면, 동일한 소절주어라 해도, 역시 단수가 아닌 복수동사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소절주어가 절이어서 단수동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Safir의 논지는 설득력이 없다.

- (25) [*Workers angry about the pay*] ***has/have** attacked the riot police last night.

이상과 같이, 우리는 동일한 소절 주어라 해도, 그 의미에 따라 수의 불일치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런 구문의 경우

소절이 절 범주이기 때문에 단수동사를 동반한다는 것은 유지하기 어려운 논지가 된다.

그렇다면, 이런 문장의 주어-동사 수의 일치를 결정짓는 주어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에 대한 답으로 Postverbal NP가 바로 수의 일치를 야기하는 주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문으로 다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26) a.?*[*Wall-to-wall carpets in every room*] is my dreams.
 b.*[*Several angry workers*] is the situations that the ad campaign was designed to avoid .

(26a)와 (26b)가 비문법적인 것은 문장의 동사가 동사 뒤의 명사구와 수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ostverbal NP가 사실상의 주어이지 문장의 앞에 있는 "*Workers ...*"가 주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분석대로 '*wall-to-wall carpets...*'이나 '*several angry workers*' 이들이 주어라고 한다면, 소절주어의 주어-동사 불일치 문제는 더 이상 의미상의 문제가 아니다. 즉, 이런 우리의 제안이 옳다면, Baltin의 입장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논지가 된다.¹²⁾

그런데, 이렇게 *be*동사 뒤의 명사구가 문장의 주어-동사의 수의 일치를 야기하는 요소라고 한다면, 문장의 주어의 위치에 있는 이런 소절 주어들은 어떻게 문장의 앞으로 전치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에 제시된 Heycock(1995)의 술어인상(predicate raising)을 수용하고자 한다.

4.2. 주어인상과 술어인상: Heycock(1995)의 분석

우리는 이미 주어-동사 불일치 구문에서 표면상 "주어"는 주어가 아니고, 사실상 *be*동사의 뒤에 오는 명사구가 동사의 수를 결정하는 주어라고 제안하였다. 그렇다면, 표면상의 어순은 어떻게 도출된 것인가? 그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형적 연결구문(canonical copular)과 도치된 연결구문(inverse copular)에 관한 Heycock(1995)의 논지를 일부 수용하고자 한다.

12. 이상의 문법적 판단은 필자가 면접한 영어모국어 화자 7인의 일관된 대답에 근거를 한 것이다.

우선 Heycock의 논의를 살펴보자.

- (27) a. John is the culprit.
- b. This would be a possible solution.
- c. The culprit is John.
- d. A possible solution would be this.

(27a)-(27b)같은 연결구문은 항상 그 상대가 되는 (27c)-(27d)같이 도치된 연결구문이 존재한다. 따라서, Heycock은 (27a)는 (28a)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주어인상(subject raising)이 적용된 결과이고, (27c)는 도치된 연결구문인데 이는 술어인상(predicate raising)의 결과이다. 그리고 그 구조는 (28b)이다.

- (28) a. [_{VP} John_i be [_{DP} t_i the culprit]] (전형적 연결구문)
- b. [_{VP} the culprit_i be [_{DP} John t_i]] (도치된 연결구문)

그런데, 문제는 만일 전형적 연결구문이나 도치된 연결구문이 모두 주어/술어 인상에 의한 것이라면, 다음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 (29) a. His attitude is [t the worst problem].
- b. The worst problem is [his attitude t].
- (30) a. His attitude seems [t the problem].
- b.*The problem seems [his attitude t].
- (31) a. His attitude was considered [t the worst problem].
- b.*The worst problem was considered [his attitude t].

(29a)의 경우, *be*동사가 인상동사이고, 보충어로 소절이 나타난 경우에 소절의 지정어의 위치에 있던 *his attitude*가 상승한 것이다. (29b)는 보충어인 소절의 명사적 술어인 *the worst problem*이 상승한 것이다. *be*동사는 인상동사이므로, (29a)같은 전형적 연결 구문이나 (29b)같은 도치된 연결구문이 모두 가능하다. 그렇다면, (29)나 (30)-(31)도 역시 인상동사인 *seem*과 *consider*인데 (30b)나 (31b)는 왜 비문법적인가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Heycock은 *seem*이나 *consider* 같은 종류의 동사와 *be*, *become*, *remain* 같은 동사를 구분하였다. 즉, *consider*나 *seem*은 소절을 보충어로 선택할 때, 최소한의 어휘적 구조 DP만을 보충어로 선택하지만, *be*,

become, *remain*은 보다 복잡한 기능 범주인 null Asp 핵(AspP)을 보충어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 null Asp 핵은 물론 그 내부에 DP를 포함하고 있다.

- (32) a. ... be [_{AspP} [_{Asp'} Asp [_{DP} John [_{DP} the culprit]]]]
 b. ... be+Asp_i [_{AspP} [_{Asp'} t_i [_{DP} John [_{DP} the culprit]]]]
 (33) a. ...seem [_{DP} John [_{DP} the culprit]]
 b. ...seem+Det_i [_{DP} John [_{DP} t_i culprit]]

*consider*나 *seem*이 소절의 핵을 어휘적 보충어로 선택한다면, 두 번째의 명사구인 *the culprit*이 문장의 주어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 - 예를 들면 (30b) - 을 설명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런 동사들의 경우, 어휘 핵 자체가 LF에서 동사에 포함(incorporated) 되어야 하지만, 만일 그 핵이 논항이동에 의해서 상위절의 주어의 위치로 이미 이동해 있다면, 동사에 포함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동사의 도치연접구문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어인상은 가능하지만 (논항이동의 경우임) 명사적 술어인상은 허락되지 않으므로, *seem* 종류의 동사에서 다음의 예문이 불가능하다.

- (34) a. John seems the culprit.¹³⁾
 b. *The culprit seems John.

이런 그녀의 논지와 분석중의 일부인 명사적 술어 인상(nominal predicae raising)을 수용하여 문장의 주어로 쓰인 소절의 주어-동사불일치 문제를 다시 살펴본다. 필요한 예문을 다시 반복해 써보면 아래와 같다.

- (35) a. [*Wall-to-wall carpets in every room*] is the housewife's dream
 b. [*Workers angry about the pay*] is just the sort of situatio

13. Heycock의 분석에 문제가 되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Williams(1983)에서 언급된 다음의 예문이다.

- (i) John seems a fool (British English)
 (ii)*??John seems a fool (American English)

William은 (i)과 (ii)가 보여주듯, 이 문장은 미국영어에서는 비문법적이거나, 영국영어에서는 문법적이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영어에서의 *seem*은 NP를 하위범주로 선택하지 않으나, 영국영어의 *seem*은 NP를 하위범주로 선택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문장도 미국영어에서도 문법적이라는 것이 설명되어야만 한다.

that ad campaign was destined to avoid.

- (36) a. [*Workers angry about pay*] is the last thing we need now
 b. [*BBC journalists angry about pay*] is the last thing we need
- (37) a. [*Several angry workers*] is just the sort of situation that the ad campaign was designed to avoid.
 b. [*Workers who are angry about the pay*] is just the sort of the situation that the ad campaign was designed to avoid.

우리는 이미 4.1에서, 주어-동사 수의 일치를 일으키는 (35)-(37)의 실제 주어가 동사 뒤의 명사구라고 제안한 바 있다. 만일 우리의 제안이 옳다면, 위의 예문들의 구조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 (38) a. ___[_{VP} **be** [_{DP} the housewife's dream]_{subj} [_{DP} wall-to-wall carpets in every room]_{pred}]
 b. ___[_{VP} **be** [_{DP} just the sort of situation that ad campaign was destined to avoid]_{subj} [_{DP} workers angry about the pay]_{pred}]
- (39) a. [[*Wall-to-wall carpets in every room*]_i **be** [[_{DP} the housewife's dream]_{subj} [_{t_i}]]]
 b. [[*Workers angry about pay*]_i **is** [the sort of situation that the ad campaign was destined to avoid] [_{t_i}]]
 c. [[*BBC journalists angry about pay*]_i **is** [the last thing we need]_{subj} [_{t_i}]]

그리고, 이런 연결동사의 경우 명사적 술어인상이나 소절의 주어인상이 모두 가능하고, 그중 주어인상이 적용되면, (40) 같은 결과가 생긴다. 그리고 술어인상이 적용되면, 소절 주어 문장인 (35)같은 결과가 생길 것이다.

- (40) a. [*The house wife's dream*]_i **is** [[_{t_i}] [wall-to-wall carpets in every room]_{pred}]
 b. *The last thing we need*_i **is** [[_{t_i}] [BBC journalists angry about the pay]_{pred}]

다시 말해서, 이렇게 주어-동사 불일치가 발견되는 (35)-(37) 같은 문장들의 “주어”는 동사 뒤에 있는 postverbal NP/DP이다. 이런 분석은 무엇보다

1999, Sair 1983). Stowell(1981)의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41) a. *After four* would be the best time for me¹⁷⁾
- b. *Under the table* is a good place to hide
- (42) a. ?**Under the chair* attracted the cat's attention
- b. ?**In capital letter* will have the best effect
- (43) a. *After four* is the best time to meet
- b. *Under the table* appears a good place to hide

(41)의 예문들은 사용된 동사가 *be*동사이다. *be*동사가 아닌 (42)의 예문들은 불가능하거나 비문법적이다. 이들의 분석은 이미 소절 주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predicate/subject raising으로 설명 가능하다. 예를 들면, (43a)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44) a. _____ would be [DP [*After four*] [the best time for me]]
- b. [*After four*]_i would be [DP [*t_i*] [the best time for me]]

이 경우 주어와 상응된 것이 (43a)/(43b)라면 술어인상이 적용된 것은 (45)가 된다.

- (45) a. The best time for me would be after four
- b. A good place to hide is under the table

이미 Heycock은 *be*동사는 달리 주어인상이나 술어인상이 다 허락되는 동사라고 하였다. 따라서, (45a)와 (45b)는 *be*동사가 있는 구문으로서 우리의 분석이 전치사구나 형용사구 주어구문에까지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seem*이 동사인 경우,

17. 학교 문법에서는 흔히 이런 경우를 전치사구가 강조되어 도치된 구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만일 이것이 전치사구의 도치구문이라면, 조동사만이 도치되고 다음과 같은 비문법적 문장이 되었을 것이다.

(i) **After four* would the best time for me be

따라서 우리는 이 구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단순한 도치구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 (46) a.? After four seems the best time to meet
 b. _____ seems [[After four] [the best time to meet]]
 b. [After four]_i seems [[t_i] [the best time to meet]]
 |_____논항이동_____|

(46a)는, *seem* 동사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After four*가 주어인상을 한 경우이다. 그러나, *seem*이 있는 문장의 경우 술어인상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예측은 다음에서 확인된다.

- (47) a.*??The best time to meet seems after four
 b.*??A good place to hide seems under the table

(46a)와 (47a)-(47b)를 비교해 보면, (47)의 예문들은 상대적으로 그 문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Heycock의 주어/술어 인상을 수용하여 비명사구를 분석한 우리의 논지는 일단 경험적 설득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6. 결론

우리는 이 논문에서 소절주어의 경우에 영어에서 전통적으로 발견되는 주어-동사의 일치현상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주어-동사 불일치구문을 논의하였다. 우선 소절과 일반 절의 통사적 차이점을 논하고, 이런 불일치 구문은 외부 논항에 의미역을 할당하지 않고, 소절을 하위범주화하여 택하는 *be* 동사같은 copular 동사들이다. 또한, 이런 현상이 외부논항에 의미역을 할당하지 않아 논항 이동이 일어나는 *appear*, *seem*, 등과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Heycock(1995)의 *be*동사와 연결구문의 논의를 수용하여 이런 불일치 구문을 분석한 결과, 실제의 주어는 Postverbal NP이고 문장 표면상의 어순은 *subject raising*이나 *predicate raising*과 같은 일종의 이동현상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것, 그리고 이런 제안의 정당함을 뒷받침 해 주는 경우가 전치사구/형용사구가 주어의 위치에 나타난 경우를 들었다.

따라서, 수의 일치(Number Agreement)가 순수하게 통사적이라는 Chomsky (1993)의 입장을 반박한 Baltin(1998)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수의 일치는 여전히 형식적인 자질의 일부로서 점검될

수 있고, 적어도 주어-동사 불일치가 발견되는 소절 주어의 경우에 관한 한 수의 일치가 의미적일 필요가 없다.

참고문헌

- Aarts, Bas. 1992. *Small Clauses in English, Nonverbal Types*. Mouton de Gruyter.
- Aarts, Bas. 1997. Predicative XPs in English.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Vol. 25.4. Sage Publications. pp.332-340.
- Abney, Stephen. 1987. *The English Noun Phrase in Its Sentential Aspects*. Doctoral Dissertation. MIT.
- Baltin, Mark. 1998. A nonargument for small clauses as constituents. *Linguistic Inquiry*. Vol. 29.3. pp.513-515.
- Chomsky, Noam.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The View from Building 20: Essays in linguistics in honor of Sylvain Bromberger*, ed. Kenneth Hale and Samuel Jay Keyser, pp.1-52, Cambridge, Mass: MIT.
- Dowty, David. & Pauline Jacobson. 1988. Agreement as a Semantic Phenomenon. *ESCOL* pp. 95-108.
- Haegeman, L. & J. Gueron. 1999. *English Grammar: A Generative Perspective*. Blackwell.
- Harley, H. & R. Noyer. 1997. Mixed Nominalizations, Short verb Movement and Object Shift in English, *NELS* 28.
- Heycock, Caroline. 1995. The Internal Structure of Small Clauses: New Evidence from Inversion. *NELS* 25. pp. 223-238.
- Quirk, Greenbaum, Leech & Svartvik. 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 Quirk, Greenbaum, Leech &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Radford, Andrew. 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poport. Tova. 1991. Adjunct-Predicate Licensing and D-Structure. In *Perspectives on Phrase Structure: Heads and Licensing, Syntax and Semantics* Vol. 25. Academic Press, New York. pp.159-188.

- Safir, Ken. 1983. Small Clauses as constituents. *Linguistic Inquiry* 14. p. 730-735.
- Stowell, Tim. 1991. Small Clause Restructuring. in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Comparative Grammar*, ed. by R. Freidin. p. 182-218, Cambridge, MIT Press. pp. 182-218.
- Williams, Edwin. 1983. Against small Clauses. *Linguistic Inquiry* 14.2 pp.730-736.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우편번호: 305-764

Email: vshong@cnu.ac.kr

Tel: (042)821-6519

Fax: (042)824-0150